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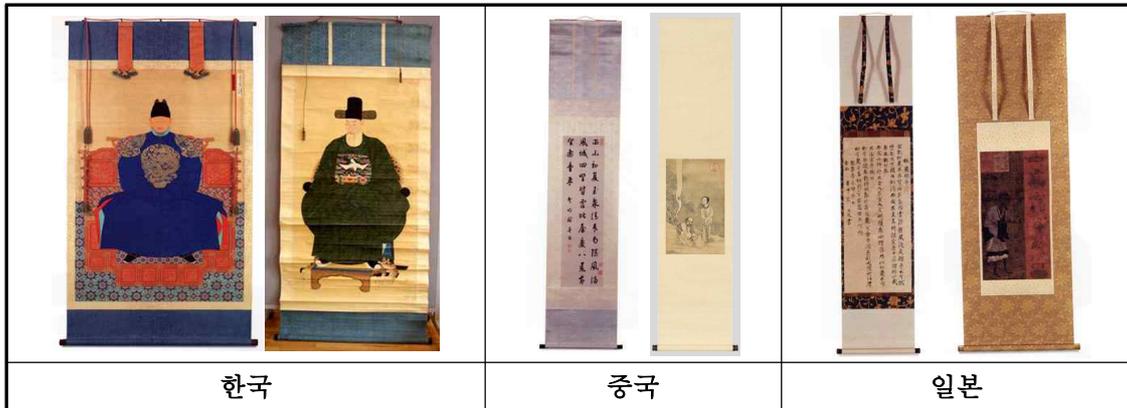
# 한·중·일의 장황

장연희, 309호 중국실 18:00~18:30

## 1. 축장(軸裝)

- 종류: 족자, 두루마리
- 형식: 축을 사용하여 그림을 마는 형식으로 보관
- 장점: 그림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산화가 방지됨.  
온·습도에 유동적이며 보관이 용이하며함
- 단점: 마는 데서 오는 물리적 손상(꺼임, 박락)이 유발됨/전문가의 핸들링이 필요

### ※ 족자



### ※ 두루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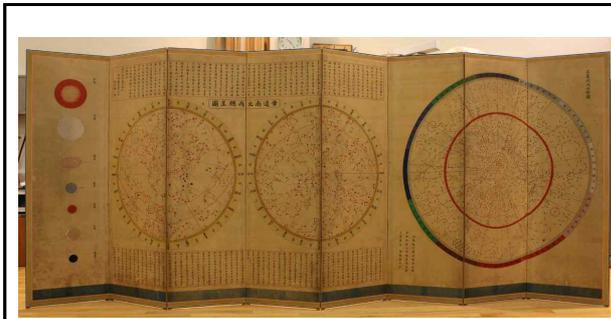


## 2. 정장(幀裝)

- 종류: 병풍, 액자
- 형식: 나무 속 틀 위에 종이를 여러겹 붙인 후 그림을 접착한 것
- 장점: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루기가 쉽다
- 단점: 공기와의 접촉으로 산화를 촉진함.

그림이 틀에 붙착되어 온·습도 변화에 따른 손상 유발

### ※ 한국병풍



한국



중국

### ※ 중국과 일본병풍



중국



일본

##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헤어짐의 이야기, 토우장식 토기

이진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한반도에서 흙으로 무엇인가를 본떠 빚는 행위는 선사시대부터 있었지만, 본뜬 무언가로 토기를 장식하는 방식은 삼국시대에 나타났습니다. 토우土偶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흙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단지 작게 만든 장난감 인형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고 바람을 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토우는 대부분 토기와 분리된 개개의 모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굽다리 접시의 뚜껑이나 긴목 항아리의 목 부분에 붙어 다른 토우들과 함께 하나의 장면을 이루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토기들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토우장식 토기는 상형토기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준비하며 만들어 무덤 안에 꺼묻거리로 넣었습니다. 상형토기가 장송의례 때 술과 같은 액체를 따르거나 담는 주자 또는 잔의 용도로 사용되었듯이, 토우장식 토기 역시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담은 제의용 그릇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송의례에 사용된 그릇 위에 펼쳐진 토우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토우 중에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를 떠나보낼 때의 슬픔을 음악과 춤으로 극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자 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

또한 일상의 한 순간을 포착한 것 같은 장면들에는 죽은 이가 저 세상에서도 생전의 삶을 누리며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토우장식 토기로 1,600년 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 가야의 예술문화

최은비, 107호 가야실 19:00~19:30

가야는 기원전후 낙동강 유역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여러 나라, 즉 금관가야·아라가야·대가야·소가야 등을 함께 아우르는 말입니다. 각각의 가야는 수백 년의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각자 개성 있는 문화를 만들며 성장했습니다. 가야는 풍부한 철과 수준 높은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활발한 대외 교역 활동을 펼치며 발전했는데, 이 때 각종 예술 문화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철제품, 다양한 종류의 토기, 세련되면서도 섬세한 금속공예품 등 다양한 곳에서 가야의 예술적인 색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야는 직접 생산한 철로 무기, 갑옷, 말갈춤 등 다양한 철제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실생활에 사용된 농공구나 무기는 실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만들었고, 의기儀器나 껌묻거리 용도로 제작한 큰 칼이나 미늘쇠(有刺利器) 등은 화려한 장식을 더하여 주인공의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용·봉황장식 고리자루 큰 칼은 주조鑄造·도금鍍金·투조透彫 등 가야 최고의 금속공예기술이 총집합된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야는 장식을 할 때 고사리모양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미늘쇠·판갑옷·원통모양 그릇받침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야는 철제품뿐만 아니라 토기제작에서도 수준 높은 기술력과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고도화된 전문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야의 토기는 1,000~1,2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져 매우 단단하고 겉면에 광택이 나기도 합니다. 가야의 토기는 곡선미와 조형미를 공통적으로 살리면서, 지역마다 특징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여 다채로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림1. 금관가야의 다양한 토기



그림2. 대가야의 금귀걸이

## 마음을 치유하는 박물관

엄채현, 120호 대한제국실 앞 19:00~19:30

2022년 8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에서 새롭게 박물관을 정의했습니다.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전시 및 전달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영구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접근하기 쉽고 포용적이며 다양성(divers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역 사회의 참여로 운영되고 교육, 즐거움(enjoyment) 및 지식 확장을 위해 다양한 관객 경험을 제공한다.” \* 향후 정식 국문 번역문 완성될 예정임

이전과 달라진 점은 다양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포용적인 단어가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박물관의 역할 외에 박물관은 대중에게 즐거움, 재미를 전달해야 하는 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게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이 되기 위해 2022년, TBWA 주니어보드라는 대학생 15명의 그룹과 협업하였습니다. 이들은 박물관이 오래되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듯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착안, ‘다친 마음에 박물관이 위로를 건넌다’ 라는 콘셉트로 ‘마음복원소’ 라는 감성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플랫폼(MODU)에서 ‘마음복원소’ 를 해보고 추천 코스로 박물관을 색다른 시각에서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마음복원소’ 는 진로, 취업, 사랑 등 다양한 고민의 이유와 나의 마음 상태를 선택하면, 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위로의 말과 박물관 속 유물, 방문지 등을 추천합니다. 역사적 지식 대신 감성적인 문구로 내게 말을 걸어오는 박물관 속 유물은 엄숙한 문화유산이 아닌 내 맘을 이해하는 친구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사랑’ 때문에 ‘구멍 난 마음’ 이 ‘80%’ 훼손됐다고 선택하면 “친구야 밥 먹었니? 며칠째 한숨만 삼켰잖아. 이제 우리 밥 한술 먹자.” (순가락/상설전시관 1층/고려 1실),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포의 용기.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진심” (미르폭포/야외/동문 부근) 등을 방문 코스로 알려줍니다.



마음복원소 메인화면